

-고 싶어 하다

(제3자가) ~하고 싶어 하다

-고 싶다는 3인칭 형태입니다. 한국어에서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직접 단정하지 않고, 겉으로 드러난 바람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작 동사	-고 싶어 하다	가다 → 가고 싶어 해요
3인칭 전용	자기 자신에게는 쓰지 않음	저는 가고 싶어요
과거	시제는 하다에	가고 싶어 했어요
목적격 조사	을/를만	물을 마시고 싶어 해요
높임 주어	-고 싶어 하시다	부모님께서 보고 싶어 하세요
형용사	-아/어지다를 거쳐서	예뻐지고 싶어 해요

■ 언제 쓰나요

싶다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며, 한국어에서 감정은 그 감정을 느끼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. 여기에 하다를 붙이면 겉으로 관찰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되어,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수 있게됩니다. 동생은 유학을 가고 싶어 해요.

이 변환은 한국어 전반에 두루 나타납니다. 좋다(좋은 상태)는 좋아하다(누군가가 좋아하다)가 되고, 슬프다(슬픈 상태)는 슬퍼하다(누군가가 슬픔을 드러내다)가 됩니다. 이 패턴을 알아 두면 뒤에 배울 여러 문법이 쉬워집니다.

이 변화의 결과로, 싶어 하다는 형용사가 아닌 동사이므로 목적어에 반드시 을/를을 씁니다. -고 싶다에서 가능했던 이/가는 쓸 수 없습니다.

■ 예문

- 1 동생이 게임을 하고 싶어 해요.
- 2 아이가 밖에 나가고 싶어 해요.
- 3 친구가 한국 여행을 가고 싶어 했어요.
- 4 부모님이 손자를 보고 싶어 하세요.
- 5 다들 일찍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
- 6 그 사람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.

■ 비교

-고 싶다
말하는 사람 자신과 듣는 사람의 바람에는 기본형을, 그 밖의 사람의 바람에는 싶어 하다를 씁니다. 듣는 사람에게 묻는 질문에서는 항상 -고 싶다를 씁니다.

뭘 먹고 싶어요? (상대에게) / 동생은 뭘 먹고 싶어 해요? (제3자에 대해)

-아/어 하다
이 형태의 바탕이 되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. 감정 형용사를 행동 동사로 바꾸며, 그 결과 동사는 목적어를 취합니다.

좋다 → 좋아하다 / 슬프다 → 슬퍼하다 / 싶다 → 싶어 하다

-(으)ㄴ/는 것 같다
확정한 것이 아니라 추측할 때는 문장을 것 같다고 감쌉니다. 그 사람이 직접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면 이쪽이 더 안전합니다.

가고 싶어 해요. (그렇다는 것을 안다) /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(그런 것 같다)

■ 주의

- ✗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 해요.
-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.
- 싫어 하다는 밖에서 관찰한 바람을 나타냅니다. 자기 자신에게 쓰면 마치 남을 관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.
- ✗ 동생은 물이 마시고 싶어 해요.
- 동생은 물을 마시고 싶어 해요.
- 싫어 하다는 동사이므로 목적어에 을/를을 씁니다. 이/가는 형용사 형태인 -고 싶다에서만 가능합니다.
- ✗ 친구는 예쁘고 싶어 해요.
- 친구는 예뻐지고 싶어 해요.
- 이 어미는 동작 동사에만 붙습니다. 형용사는 먼저 -아/어지다로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로 바꾸십시오.